Episode\_2

★

잠깐 만요. 저 얘기 아직 안 끝났..

너 지금 저 문으로 들어 온 거야? 나 따라서?

근데 여기 왜 이래요? 여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 어디예요 대체?

캐나다.

캐나다면.. 그 단풍(maple)국? 막 오로라 거기? 여기 여기 진짜 외국이에요?

대박! 아저씨 이런 능력도 있었어요?

너도 있네. 너 진짜 뭐지?

여기가 진짜 캐나다고 아저씨 능력이 이 정도면 저 결심 했어요.

뭘?

마음 먹었어요, 제가.

뭐 뭘?

저 시집갈게요 아저씨한테!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가 맞는 거 같거든요. 사랑해요. 어 처음 들은 척 하는 것 봐.

하지마.

오 적극적으로 거절 안 하는 것 봐. 자 그럼 저리로 가 봅시다. 신혼여행이다 생각 하고.

야! 야!

저 되게 자연스럽죠? 불법 체류자 안 같죠? 외국 처음 온 애 안 같죠? 우와! 우와!

Merry Christmas!

메리 크리스마스!

저 사진 좀 찍어 주시면 안돼요? 이 풍경 안에 있는 저를 남겨 놓고 싶어서.. 여기 보시면 이거 누르시면 찰칵 소리가 나면서..

알아.

어- 의외인데!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찍어 주세요.

싫어.

아! 아 진짜 어디가요? 아 같이 가요! 우와 역시 단풍국. 이곳인가 나를 위한 레드 카펫? 함께 걸어서 영광이죠? 다행이다. 영광(도시 이름)은 굴비(영광의 특산품, 말린 물고기)지 할까(영광은 굴비지→재미없는 말장난) 봐 조마조마 했는데.. 근데 저 표지판은 뭐예요?

요정 출몰 지역.

여기가요? 우와 요정이 나와요? 대박이다. 로맨틱해! 아저씨는 좋겠네요.

내가 왜 좋아?

요정 출몰. 요정 만났잖아요. 팅커벨. 난 좀 들켜서 속상하네.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지? 이런 로맨틱한 추억 만들라고 다 저런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이 동네는 이름이 뭐예요?

퀘백(Quebec).

어우 이름도 멋져. 근데 그거 알아요? 떨어지는 단풍잎을 잡으면.. 지금 잡았어요? 아 빨리 버려요.

왜 그래야 되는데?

떨어지는 단풍잎을 잡으면 같이 걷던 사람이랑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.

너 솔직히 말해봐 그거 방금 지어낸 거지?

아니거든요. 떨어지는 벚꽃잎 잡으면 첫사랑이랑 이루어진다는 말이랑 같은 맥락이거든요.

나 사랑한다며?

아저씨 도깨비예요?

아니야.

그니깐요. 빨리 버려요.

그럼 넌 왜 잡으려고 그랬는데?

저는 저 오빠랑 같이 걷고 있다고 생각 하니깐요.

오빠?

잘생긴 오빠 가까이 가서 주의 깊게 봐야지. 캐나다 귀신! 캐나다 귀신! 아 무서워! 귀신이랑 눈 마주쳤어! 아 울렁거려.

너 귀신 자주 본다며 뭐가 무서워?

영어로 말 걸잖아요. 귀신이 영어로 말 거니깐 영어 더 모르고. 아니 근데 이 아저씨가 여기 호텔 아니에요? 암만 외국이라도 그렇지, 고딩(고등학생)이랑 이런데 좀 그렇지 않나? 이쪽 이쪽 하더니!

너 나한테 시집 온다며.

아저씨 도깨비예요?

아니야. 여기서 쉬고 있어.

어디가요?

볼일 있어.

무슨 볼일이요? 저도 같이 가면 안돼요? 외국 처음이라서 엄청 무서운데..

엄청 무서운 애가 여기저기 잘도 뛰어 다니더라.

아 그거는 다 아저씨가 옆에 있으니깐 믿고 그러는 거죠. 오래 걸려요? 누구 만나는데요? 아, 여자 만나는구나? 그쵸. 캐나다까지 왔는데 무슨 약조가 있었겠죠. 나보고 도깨비 신부 아니라는 게 다 맥락이 있었겠죠. 알겠어요. 다녀오세요. 아 난 뭐 돈도 없고, 여권도 없고, 아는 사람도 없고 막 또 호흡이 막 불안정 하지만 혼자 기다려야겠지요.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?

모르겠는데.

한 10달러만 빌려 줄 수 없겠냐는 뜻이죠. 아저씨가 저 버릴 수도 있고 뭐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그럼 제가 대사관에 전화라도 해야 하는데..

내가 너 버리면 소환해. 대사관 보다 그게 빨라 넌.

100달러도 아니고 10달러 아끼자고 저렇게까지 설득력을 갖춘다. 주지 마세요. 그래요. 네? 주지 마요. 주면 안돼요. 주기만 해요. 진짜 갔어..

★

잔돈이랑 영수증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건 말씀 하신 기타 누락자(마땅히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 빠진 사람) 서류 입니다. 반드시 수기 작성 하시랍니다.

에휴.

근데 기타 누락자는 왜 생기는 겁니까? 아 전 기타 누락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처리해 본적이 없어서요.

신의 변덕 같은 거야. 인간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고, 우리들은 그걸 기타 누락자 라고 하는 거지.

그럼 선배님 건도 기적 입니까?

더 특이 케이스, 생사부에도 명부에도 이름이 없어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.

듣기만 해도 골치 아픕니다. 그 서류 언제 다 올립니까?

그러게나 말이다.

근데 선배님 이사 하셨다면서요? 집들이(housewarming) 안 하십니까?

전세라..

저도 이사가야 되는데 돈이 안 모입니다. 근데 집 주인 여자가 신기(superhumanity)가 있는지 자꾸 꿈에 저승사자가 나온다고.. 아주 죽겠습니다.

그러게 내가 집터 잘 보라고 몇 번을 말했어.

옥탑방(건물 옥상에 있는 집) 꼭 살아 보고 싶어서요. 아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? 저승사자인데 무슨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잠 못 자면 졸리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. 요 며칠 야근 했더니 피곤해 죽겠습니다. 저 요즘 이거 달고 삽니다. 아 맞다, 이번 23기 중에 되게 예쁜 애 들어 왔는데 혹시 보셨..

당신 사람 쳐 놓고 어딜 도망가?

뭐야 이씨.

그래 맞지? 너 술 마셨지? 끝났어.

수고 하십시오.

이 여자가 미쳤나 누가 술을 마셔? 야 사지 멀쩡 하면 됐지 왜 지랄이야 지랄이.

경찰서가! 경찰서 가자고!

이거 안 놔? 놔 이거 놓으라고 이거 놔!

죽여 보라구!

놔, 안 놔?

박용원 김혜령 병신년 무술월 기미을 02시 22분 교통 사고 사망. 본인들 맞으시죠? 드세요. 이생의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.

정말 다 잊어야 하나요? 저 인간에 대한 원망도?

이 여자야 다 지 팔자인 거지, 다 죽은 마당에 뭘 또 꼬라봐(꼬나보다: 못마땅한 듯이 사람을 노려보다), 꼬라보긴?

그러는 편이 좋습니다. 망각 또한 신의 배려 입니다.

근데 너 왜 이거 이 여자는 주고 나는 안 줘?

당신은 기억 해야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. 사람 치어서 죽게 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. 처음엔 차 한잔 못 마신 이 순간을 후회할 거야. 다음엔 차 한잔 못 마신 이유를 되짚을 거야. 그리고 깨달을 거야. 그 어떤 순간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넌 이미 지옥에 있다는 걸. 온 몸이 매일 조각조각 찢길 거야, 고통에 몸부림 치는 매 순간 너는 네가 한 짓을 후회 하겠지만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. 영원히.

잘못 했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.

글쎄 워낙 신경질적이셔서. 생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진 채로 지옥을 살고 있는 이를 한 명 알지. 그 또한 수없이 빌었을 거야. 용서해 달라고, 그래도 소용 없었지. 그는 여전히 지옥 한 가운데에 서있으니까.

★

NAR 함께 고려를 떠나 왔던 어린 손자의 손자의 손자를 묻었다. 이 삶이 상이라 생각 한 적도 있으나 결국 나의 삶은 벌이었다. 그 누구의 죽음도 잊히지 않았다.

TEXT ON THE SCREEN

유금선 ‘고려에서 태어나 이국 땅에서 잠들다,

유문수 ‘좋은 벗, 좋은 스승 여기에 잠들다,

유한호 ‘비로소 더 없이 자유롭기를,

그간 편안하였느냐? 자네들도 무고한가? 나는 여태 이렇게 살아 있고, 편안하지 못하였네.

★

찾았다.

얌전히 있으랬지.

얌전히 있었어요.

온 줄도 몰랐으면서. 볼일이 여기였어요?

다 끝났어 이제 가려는 참이야.

근데 아저씨만 묘비 명이 없네요. 매번 이렇게 살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? 몇 번이나요?

안 세어 봤어.

안녕하세요 지은탁 입니다.

대략 한 200년 후에 아저씨 신부 될 사람 입니다.

아니야

아닌가 봅니다.

그치만(그렇지만) 한 200년 후에도 아저씬 여전히 멋있으세요. 때때로 좀 못됐기는 했지만 반듯하게 잘 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. 그럼 전 이만. 가요. 오래 살았어요, 여기?

무인산중의 오두막이 저 호텔이 될 세월만큼 떠났다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했어. 처음 고향을 떠나 정착한 곳이 여기였거든.

아깝다. 그때 그 오두막을 샀어야 하는 건데, 그럼 저 호텔이 아저씨 건데. 설마 저 호텔이..

그 눈빛이 뭘까?

이거 드실래요?

너 이거 어디서 났어? 돈 없잖아.

그래서 훔쳤죠. 얼른 드세요. 빨리 먹어 없애야 돼요.

뭐?

믿는다 그걸. 아니 신기해서 쳐다 보니까 불쌍한지 주더라구요. 근데 진짜 저 호텔이 아저씨 거예요?

안 늦었어?

어딜요?

학교.

지금 한국 몇 시예요?

오전 10시.

아으 죽었다 담임한테.

저 그냥 여기서 살까요? 지각 보다 불법 체류자가 낫지. 그죠? 그게 날 거..

아 잘 잤다. 꿈에서 깬 거 같아서요.. 저 외국 여행 가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봤는데. 덕분에 외국도 가보고 오늘 감사 했습니다. 그럼 전 이만. 꿈 깼으니까 이제 등교 해야죠. 혹시 제가 오늘 민폐 끼쳤더라도 한 번만 봐 주세요. 제가 진짜 너무 신나서 그랬을 거니까요.

★

지은탁, 지금 몇 시야? 몇 시야 지금!

죄송합니다.

너 고3 이야, 고3이 어떻게 3교시에 등교를 해?

너 급식 먹으러 학교 오니? 아님 학교 다니기 싫어? 수시도 접수 했고 고3 끝났지 아주? 대학 붙었어 아주, 응? 등록금도 없다면서.

죄송합니다.

왜 늦었냐고, 너 부모님 안 계셔서 이모 밑에서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다. 다 힘들어 다. 수능 막바지고 너 대학 못 간다고 다른 애들한테까지 피해 줄 순 없잖아?

저 대학 갈 건데요.

어머 얘 저 눈빛 좀 봐. 가 누가 가지 말래? 아 꼭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이런 식이더라. 잠깐 기다려. 어휴 안녕하셨어요 지수 어머니? 아 네, 네. 아 뭐 별 말씀을..

★

비를 맞고 돌아 온 저녁 당신의 우산이 되어 주는 건 무엇 인가요? 부르면 대답하는 목소리, 같은 시간에 같은 걸 봤던 기억, 처음 속도를 맞춰 걷던 순간 같은 것들, 누군가가 생각 나시나요?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. 첫 곡 보내드릴게요.

바빠?

어. 바빠.

그럼 나 좀 따라 나와 봐.

바짝 따라 와, 너무 붙지는 말고.

바짝 따라가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어야 할거야. 안 그러면 죽는다.

나도 그거 확인하는 거야, 나의 생사 여부.

뭔 소리야? 왜 거기로 나와?

신기하지. 저승사자도 그저 신기한 걸 그 아인 했단 말이지.

뭐 누구? 누가 뭘 했는데? 다시 해. 더 바짝 붙어서.

무슨 짓이야?

왜 뭐! 승부욕이야. 어디로 가?

나한테 그냥 욕이나 하고 꺼져. 멀리 가 멀리. 꺼져!

네가 그러고 들어가면 내가 뭐가 돼? 뭔데? 내가 뭘 못 하는데?

세입자님?

아 깜짝이야.

아이고 우리 세입자님 왜 나와 계세요? 밖에 추운데. 삼촌은요?

안에.

아니요 아니요. 사실 저는 저희 세입자님 뵈려고..

거기서.

스킨쉽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. 아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구요, 혹시 생활 하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신가 해서 갑자기 막 습해진다든지 문 밖이 막 환해 진다든지.

난 그저 그쪽 삼촌이 갑자기 막 집만 나가 줬으면 좋겠거든?

그쵸. 아, 사실 저도 삼촌이 하루 빨리 국제로 좀 나가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. 알고 보면 되게 큰 사람인데 왜 한국에서 저러고 있나 싶고, 막 느껴지시죠?

아니.

안 느껴지시는구나.

근데 제가 앞으로도 자주 들를 거 같아서 그러는데 호칭을 뭐라고.. 계속 세입자님 세입자님 하면 정 없어 보여가지고요 삼촌은 너무 다정 할까요?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끝 방 삼촌, 저 한번만 살려 주세요. 혹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누구시냐고 물으시면 그냥 놀러 왔다고 해주시면 안되나요? 그 분이 제가 끝 방 삼촌에게 세 놓은 거 알면 저 진짜 죽거든요.

그 할아버지가 누군데?

저희 할아버지요. 저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끝 방 삼촌의 편에 서겠습니다. 진짜로.

아휴, 아휴, 아휴.

진짜로요!

★

이 문을 열면 캐나다다, 캐나다다.

쓸 거야 학생?

아니요. 쓰세요.

고3?

어떻게 아세요?

교복 입고 눈깔 퀭하면 대부분은 고3 이더라구.

아 눈깔..

어디 살아?

어 저 요 근처에 살아요.

잘 됐네. 이거 가져가서 먹어.

시금치네요.

부담 갖지는 말고, 남자한테 받은 거야.

시금치를요?

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 꼭.

★

다녀 왔습니다.

야, 넌 다 저녁이 되도록 어딜 싸 돌아 다니다 이제 와?

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이제인데요?

너 꼬박꼬박 말 대꾸 해?

엄마 나 배고파.

나도 고파 이 새끼야.

에휴, 남의 집 새끼들은 밖으로 잘 만 논다는데 에휴.

빨리 밥이나 해.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기다려 이 기집애(계집애: 여자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)야.

네, 네.

대답을 한 번만 해 어?

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 꼭.

엄마, 엄마, 엄마, 이것 봐. 쟤 해외로 튈 준비 하나 봐. 내가 검색해 봤는데 여기 캐나다야.

뭐? 줘봐. 어, 내가 이년이 이럴 줄 알았어. 보험금 들고 아예 해외로 튀려고? 너가 이러고도 통장이 없어? 어?

주세요.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.

이게 왜 기념이야? 뭐가 기념이야? 네가 이런데 언제 가봤다고 기념이야? 어 그래 너 오늘 잘 걸렸어 네가 키워준 은혜를 이따구(이따위)로 갚아? 이따구로? 이따구로? 이따구로?

주세요. 제거이니까 주세요.

이게 그냥 이게 그냥!

도망 갈 생각에 신났네. 김밥 만 거 보니까. 맛있겠다.

통장 어디 있어, 어? 통장 어디 있어 이년아.

피! 피!

뭐가 맛있겠어? 네 손이? 븅..

저 것들이 왜 쌍으로 지랄들이야?

피! 엄마! 피!

야 이 기집애야 어딜 도망가? 거기 안 서?

★

소환도 하고 문도 따라 들어오는데 검은 못 본다. 대체 뭐란 말이냐 너는?

200년 후에 아저씨 신부 될 사람 입니다. 사랑해요.

무엇보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퍽(매우) 난감하군. 호기심은 항상 품위를 이기는 법. 매우 궁금하니 가서 물어 봐야겠다.

어?

야, 본지 얼마나 됐다고 또 불러내 것도 이 밤중에? 내가 아주 바쁜 와중에 중요하게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?

저 안 불렀는데요.

너 불렀어.

아닌데, 이번에는 진짜인데.

너 방금 내 생각 했어 안 했어?

아, 그게..

거봐 맞았지, 내 생각 했지? 네가 그렇게 내 생각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 자꾸 불려 나오는 거 아니야 아 피곤해.

내가 아저씨 생각만 해도 소환 되는 거예요?

그거 정확하지는 않은데 섬세하고 예민한 편이니까 서로간에 주의 좀 하자.

아, 죄송해요.

내 생각 뭐 했는데? 어떤 종류?

그게 캐나다 예뻤는데, 여기서 살면 행복하겠다, 그래도 잠깐은 행복했네.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아저씨 생각이 당연하게 나서, 옷도 비싸 보이고 시계는 더 비싸 보이고 호텔도 자기 거 같고 좋은 건 다 가졌는데 왜 슬퍼 보이지? 그런 생각으로 이어진 건데..

뭐 그건 그렇고, 뭘 그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 이 밤 중에 수상하게?

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?

나도 좀 뭘 몰랐으면 좋겠다.

이모네 잠 드는 거 기다리는 중이요. 한 번 골아 떨어지면 업어 가도 모르니까 얼른 자고 아침 일찍 나오려구요. 한 열두 시면 골아 떨어져요.

그래서 여기서 계속 서성이겠다고 열두 시까지? 먹은 거 소화 안 돼서 걷는 거야.

알아요. 아까도 말했는데.

뭘 되게 잘 드셨나 봐요?

오해 하지 말라고.

그 말도 세 번 했어요. 가셔도 되는데.

그 말도 세 번 했어.

대박! 지은탁 원조교제(paid sexual relations with minors) 현장 발견. 남자 딱 봐도 30대.

미친, 인증샷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 얼른.

TEXT ON THE SCREEN

지은탁 원조교제 현장 발견

남자 딱 봐도 삼십대

미친ㅋㅋ

인증샷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 얼른ㅋㅋ

아이 씨 뭐야? 문을 왜 열어? 엄마..

★

실례 합니다.

어서 오세요. 포장?

아 저 손님 아니구요, 요 앞에 알바(아르바이트) 구한다고 붙여 놓으셔가지고. 사장님 안 계세요?

계시네 여기. 고딩?

아 네. 아 사장님이셨구나.

전 너무 예쁘셔서 손님인 줄 알았어요.

그지? 손님 예쁜데 근데 손님 본지가 언제 인지 모르겠다.

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 보세요. 참고로 전 사장님 조건 다 맞출 수 있거든요. 제가 더 이상 물러 날 곳이 없어서. 제 나이 아홉 살에 조실부모하고 사고무탁하여 혈혈단신(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홀몸)

아 무, 우리 집 무 맛있는데, 손님이 무 달라고 한 게 언제 인지 모르겠다. 먹을래?

감사합니다.

가난하니?

아, 그런 편이예요.

학교는 안 다녀?

다니는데요. 고3이에요.

좋겠다. 어려서.

네?

이따 약속 있니?

아니요.

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. 일해.

정말요? 우와 감사합니다.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. 정말 진짜.

그래, 너 알아서 해.

네, 알아서 척척 잘 하겠습니다.

아저씨가 말한 닭은 치킨이구나.

그지, 닭은 치킨이지. 근데 손님이 치킨 달라고 한지가 언제 인지 모르겠다.

★

TEXT ON THE SCREEN

아르바이트

지은탁

아 아 아저씨 뭐하세요? 제 생각 들리세요? 뭐야? 생각해도 안 오네 뭐.

나 드디어 알바 붙었어요. 사장님 완전 미인. 어우 완전 비싼 거 먹어. 근데 돈 오백을 그렇게 안 해준다.

그거 핸드폰 걸고 받고 만날 생각은 없니? 문명인답게?

전 이대로 괜찮은데.

내가 안 괜찮아. 내 생각은 안 해?

생각해도 안 오던데요 뭐. 미래를 약속하고 만날 생각은 있는데. 사랑해요. 아 스테이크 냄새. 배고파

으이구!

★

엄마..

이 옷이 더 낫지?

무슨 옷?

아까 입었던 옷이랑 솔직히.

옷을 갈아 입었어?

그럼 옷이랑 이 책은 어울려?

아무래도 계속 부를 기세야. 언제 어디서든 지적이고 빈틈 없는 모습이고 싶어.

누구한테?

아 제발 집중 좀 해. 내가 이 집 떠날 때 입을 옷이라고 생각해. 그럼 쉬울 거야.

멋져! 막 눈 부셔 최고!

이 옷은 아니란 얘기군. 이 LP가 나아? 이 CD가 나아? 클래식부터 K-POP까지 편견 없이 듣는 설정이야.

요새 애들 다 파일로 들어.

야 이 그림이 나아? 이 그림이 나아?

나가.

포스트모더니즘이랑 이상주의까지 아우르는 설정인데. 너 이러고 자?

왜? 난 이렇게 자야 편해.

하지 마. 이게 방이야? 영안실이지. 화환(축하나 애도 따위를 표하는데 쓰는 꽃으로 만든 물건; 주로 결혼식/장례식에 사용)은 안 필요해?

그냥 좀 자자. 부셔버릴 거야.

뭐하냐?

빨래가 다 말라서.

열심히 해.

도깨비 빤스(팬티)는 튼튼해요. 질기고도 튼튼해요. (이런 동요가 실제로 있음)

하지 마.

아 이게 네 노래였어? 몰랐지 난. 어쩐지 되게 몰입 되더라.

도깨비 빤스는 더러워요. 냄새 나고 더러워요.

경고 했다.

도대체 빤스에 무슨 짓을 했길래.

아니야.

이게 이렇게 노래로 남을 정도면..

아니라고!

대체 빤스에 뭔 짓을 하면 노래로 남지? 되게 남자다웠나?

하지 말라고.

★

성북동 일대에 때아닌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

TEXT ON THE SCREEN

서울 성북동 일대 강력한 폭우

별일 없어, 삼촌? 이 때아닌 폭우가 글쎄 성북동에만 쏟아졌대. 아니 삼촌 왜 구겨져 있어?

덕화야.

어 말해 무슨 안 좋은 일 있어?

무슨 안 좋은 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 보다 앞서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. 네 집안에 대한 비밀과 내 비극적 운명에 대한 얘기다. 놀라지 말거라. 사실 나는..

도깨비라구? 그 얘기가 아닌가?

대체 언제부터 안 것이냐?

여덟 살 때 알았는데. 사실 여섯 살 때부터 의심은 좀 했어. 삼촌 취하기만 하면 금나와라 뚝딱(도깨비가 외우는 주문)해서 나한테 금 자랑 하고 그랬잖아. 기억 안 나?

이거 나 주는 거야?

아닌데.

짱나(짜증나)

거기서 일단 진짜 삼촌은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고, 음 지금도 봐봐 매번 이런 식인데 내가 어떻게 몰라, 조심 좀 해라. 집에서 새는 삼촌 밖에서 안 새는지(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.) 걱정이다 나는.

그러니까 너는 내가 도깨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지 여섯 살 때부터 쭉?

어.

근데도 너는 나한테 어 라고 했단 말이지 여섯 살 때부터 쭉?

어..니요.

오늘 낮 뇌우를 동반한 국지성(일부 지역) 폭우 많이 놀라셨죠? 서울 기상청은 잇따른 폭우 관측으로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퇴근길 혼잡이 걱정입니다.

이민수 기자입니다.

성북동 일대에 낮보다 더 큰 폭우가 쏟아져 퇴근길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교통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TEXT ON THE SCREEN

“서울 성북동 일대 강력한 폭우”

비 오네. 좋다.

뭐가 좋아요? 비오면 손님도 없는데.

비 안 와도 손님은 없어. 어차피 안 올 거 비라도 오니까 좋잖아.

저 우산 없는데.

내 거 많아 하나 가져가. 맨날 귀찮아서 안 가져 갔어. 귀찮으니까 도로 가져오지 말고

진짜요? 저 우산 생겼어요.

우산 처음 보니?

감사합니다.

내 인생에도 우산이 생겨야 할 텐데. 아 눅눅해.

새 거 드릴까요?

됐어, 아는 맛이야. 새 거 씹기 귀찮아.

어디 가시게요?

그런 멘트는 사장 전용이야 알바생. 넌 나 없을 때 땡땡이 치고 놀면 돼.

에이 사장님 안 계신다고 땡땡이 치면 어떡해요, 알바생이. 안 보일 때 더 열심히 해야지요.

안 보일 때 더 열심히 하면 사장은 몰라 알바생 놀아.

아이 씨 멋있어. 다녀오세요

★

응?

아, 세 쌍둥이. 내가 제일 막내.

보자 보자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가?

그건 그쪽이 맞혀야 하는 거 아닌가?

뭣이 잘 안 풀리지?

잘 풀리면 여기 안 있지, 가게 앉아 돈 세고 있지.

아이고 서방복에 자식복 하나도 없고 도화살에 역마살에..

그니까 살(악한 귀신의 기운)이란 살은 다 꼈어 나잇살까지 나 살 빼야겠죠?

이 팔자 참 춥다 혈혈단신 천애고아(부모가 없는 아이)구만.

그건 또 어떻게 안데?

망망대해(넓고 큰 바다)에 띄워진 돛단배 같은 인생이네.

그 배에 잘생긴 남자랑 둘이 있었으면 좋겠네.

어, 보인다 남자. 모자 쓴 남자 조심해. 새까만 모자.

그 모자 쓴 남자 잘 생겼으면 좋겠네.

★

어디가?

세탁소. 드라이 클리닝 온리(only)거든 이게.

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 모자 정말 좋은 기획이야. 망자(죽은 사람)들 마지막 가는 길에 우스워 보이기.

‘죽음을 찾지 말라. 죽음이 당신을 찾을 것이니’에 입각한 아이템이야. 이걸 써야 망자들이 알아봐. 인간들 눈에는 안 보이고.

인간들 눈에 안 보인다니 다행이다. 많이 창피할 텐데. 잘 다녀와.

★

다리미로 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?

넌 언제적 사람이냐?

요새는 이렇게만 해도 잘 붙어.

그러는 넌, 요새 누가 단풍 코팅 한다고..

이거 받을 사람이 좀 옛날 사람이라 괜찮아.

누구? 너 남친 생겼어?

야! 남친은 무슨. 알바 구해주고 해서 그냥 고마워서.

근데 이거 받고 오해 하면 어떡해? 자기 좋아한다고.

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이라 안 그럴 거야.

★

아저씨 나 아저씨 선물.. 아 목도리 목도리 놓고 왔다.

역시 넌 내가 보이는구나. 10년 전에도 지금도 멘트도 똑같고.

아 사장님이 문 잠그셨으면 어떡하지? 아 바보.

소용 없어. 보이는 거 다 알아. 이젠 널 지켜 줄 이도 없고.

나도 들킨 거 알거든요.

이사 갔더라. 덕분에 10년째 찾았는데, 오늘 이렇게 보네.

그럼 찾지 말든가. 이 정도면 이승에서 스토커라고 불러요. 알아요? 고소할거야! 명부에 내 이름도 없잖아요.

기타 누락자에는 올라가 있어. 19년치 증빙서류(documentary evidence) 때문에 골치 아프기는 하겠지만.

그럼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저 죽어요? 저 이제 겨우 열아홉인데?

아홉 살에도 죽고, 열 살에도 죽어. 그게 죽음이야. 그런데 이번엔 대체 누구랑 있는 거야, 넌 또.

눈 감으세요 눈 마주치면 안돼요. 저 사람 저승사자예요. 안돼요, 눈 마주치면 안돼요.

괜찮아 우리 구면(얼굴을 아는 사이)이야. 일하는 중인가 봐?

난 그러는 중인데 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

난 인간의 생사에 관여하고 있는 중이지.

그러니깐 큰 실수 하는 거 같아서. 이 아인 이미 19년 전에..

내가 설명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? 도깨비가 진지할 때는 흘려 듣지(흘려 듣다: 대충 듣다)말라고 안 배웠어? (도깨비와 저승사자는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음!) 조심해 그대의 생사(삶과 죽음)에도 관여하고 싶어질지 모르니.

일단 튀어요. 튀면 방법 있어요. 이쪽!

괜찮아, 그냥 있어. 너 못 데려 가니깐.

좀 전에 10년 동안 날 찾고 있었..

그래도. 100년을 널 찾고 있었어도 그래도. 어떤 사자도 도깨비에게 시집 오겠다는 애를 데려 갈 순 없어. 그것도 도깨비 눈 앞에서.

음 그럼 혹시 쟤가..

네 맞아요! 저 맞아요! 소문 무성한(많은) 그 도깨비 신부

이제 어쩔 건데요? 그래도 나 잡아 갈 거예요?

보아하니 분위기 상 내가 나쁜 놈인 모양인데, 나도 급한 건 저쪽이라.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하자. 우린 또 보자. 오늘처럼 우연도 좋고 나랑 선약(먼저 약속함)을 잡아도 좋고.

말해. 할말 되게 많은 얼굴 인데.

거 봐요. 도깨비 맞잖아요. 그럴 줄 알았어. 근데 왜 도깨비 아니라고 거짓말 했어요?

처음에는 널 다시 볼 줄 몰랐으니깐. 네가 들어올 줄 알았나. 한번도 누군가 따라 들어 온 적 없는 내 문안으로.

그 다음엔요? 내가 다음에도 여러 번 물었잖아요.

그 다음에는 정정할(고치다) 필요가 없었으니깐.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넌 도깨비 신부가 아니니까.

그럼 난 뭔데요? 귀신들이 맨날 그 놈의 도깨비 거리면서 와서 말 걸고 안 보면 안 본다고 괴롭히고 보면 본다고 들러 붙고, 이렇게 살아 있는데 저승사자는 살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난 뭐냐구요?

말했잖아. 네가 감수해야 할 거라고 나한테 따질 건 아닌 거 같은데.

치사해. 너무 치사해. 내가 뭐 도깨비 만나면 진짜로 시집 가려고 그랬겠어요? 솔직히 말해 봐요 다른 이유죠? 혹시 내가 안 예뻐서 도깨비 아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? 아저씨 이상형이랑 너무 동 떨어져서? 맞네.

아니야.

뭐 맨날 아니래. 도깨비도 아니라고 했으면서 맞았잖아요.

너 예뻐.

난 900년을 넘게 살았어. 나는 예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. 나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 하지 못한 너는 도깨비 신부가 아닌 거고 단지 그것뿐이야. 네가 효용 가치(effective value)가 없다는 것도 그 뜻이거든.

너무 쌈박해서(일의 진행이 시원하고 말끔하게 이루어지다) 상처다.

상처 받을 거 없어. 외려(오히려) 다행이라 여겨(여기다: 마음속으로 인정하다, 생각하다). 네가 나에게 무언가 발견 했다면 넌 날 아주 많이 원망 했을 거다.

그럼 끝까지 도깨비 아니라고 하지. 이제 와서 밝히는 건데요?

아니라고 했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, 괜한 헛된 희망으로 날 불러 내지 말라고. 나 이제 여기 곧 떠나 거든.

어디로요? 아니에요. 대답하지 마세요. 하나도 안 궁금해. 누가 아저씨 신부 한대요? 꽃다운 열아홉에 미쳤어요, 내가? 다시는 안 불러 낼 테니깐 마음 편히 사세요. 나도 아저씨 필요 없거든요. 그냥 아, 도깨비 이렇게 생겼구나 싶거든요.

★

드디어 죽는 거야? 소문은 신부가 나타나면 죽는다던데.

애석하게도 못 죽어. 걔가 검을 못 봐.

뭐 아직 못 보는 것일 수도 있잖아. 혹은 홀딱 다 벗어야 보이거나. 애가 아직 어리던데.

애가 아직 어리니깐 얼씬도 하지마.

왜 보호 하는데? 검도 못 본다며.

그냥 축하나 해. 더 오래 살게 됐으니까.

딴 데 가서 오래 살아. 나는 내 생사에 관여하는 도깨비랑은 같이 못 살아.

네가 나가는 아주 쉬운 방법도 있어. 출구는 저쪽이야.

★

TEXT ON THE SCREEN

(도깨비 관련 동화책)

무서운 괴물 VS 어수룩한 순둥이

책 읽어주는 도깨비

메밀묵 도깨비

도깨비 신부와 보물상자

도깨비의 역설

신통방통 도깨비

도깨비가 꼼지락 꼼지락

언니는 다 큰 언니가 왜 이런 거 봐?

남친 뒷조사 같은 거랄까? 페이스북 터는 거랑 비슷한 거야. 너도 나중에 크면 이런 거 다 해봐야 된다 알겠지?

언니 남친이 동화책에 나와? 왕자님이야?

그러게 기왕 동화책에 나올 거면 백마 탄 왕자님이면 얼마나 좋아, 이게 뭐야 이게.

이게 더 재미있어. 이거 봐.

고마워.

그 다음엔요? 내가 다음에도 여러 번 물었잖아요.

그 다음에는 정정할(고치다) 필요 없었으니까.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넌 도깨비 신부가 아니니까.

참 빗자루였던 주제에. 안 해 나도 버릴 거야!

TEXT ON THE SCREEN

알록달록 색깔 숲 속 도깨비

★

덕화 너!

삼촌 있었어? 아이 삼촌도 피웠다 끊었다며..

언제적 얘기를.. 350년 전이다 350년!

헐. 미안.

쟤 왜 저래?

3시간째 저래요. 습해서 미치는 줄.. 에휴 끝방 삼촌까지 왜 그래요 진짜?

이게 뭉게구름인가? 그걸 물어 보려고 급하게 왔네.

삼촌, 비는 안돼. 누가 치워 그걸.

딱 보니 여자 생각하는 얼굴인데.. 근(약간) 한 300년 만에 여자랑 세 마디 이상 나눴는데 여자한테 상처 준 얼굴.

내가 뭐! 뭐가! 어디가?

부부 싸움의 결말이 그다지 좋지 않았나 봐. 4주 후에 뵙겠습니다(이혼 재판에서 판사가 서로 이혼에 대해 더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주는 기간) 뭐 그런 건가?

헐 대박! 삼촌 여자 생겼어? 예뻐요?

19살이야?

헐 대박! 예뻐요?

나 걔 생각한 거 아니야. 주식 동향 생각 한 거야. 애 앞에서 별 이야기 다 하는 저승사자!

저승사자의 예지력을 우습게 보지 않길 바래. 애 앞에서 여자 생각 하는 도깨비! 왜?

뭐?

뭐 자각(스스로 깨달음) 못 했으면 됐어요. 아니 근데요, 상처 줬으면 상처 줬다 미안하다 남자답게 팍 사과 하면 되잖아요. 왜 이러고 있냐고?

덕화야,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러는데..

시끄럽구요.

작게 말했어.

아, 대화 한심하다.

끝방 삼촌이 이해하세요. 어디 내놔도 창피한 삼촌이라 제가 다 죄송하네요.

아 걍(그냥) 사과해요 남자답게, 예? 남자답게 빡! 반지 빡! 백 빡! 카드!

어디가?

슈퍼, 넌?

세탁소. 이게 자주 드라이클리닝 온리라. 먼저 간다.

수고해.

★

슈퍼 간다며? 여기가 슈퍼야?

세탁소 간다며? 여기가 세탁소야?

그래서 나 미행했냐? 애도 없고

없어? 네가 죽였냐?

그런 거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야, 부주의한 도깨비!

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게 더 무례야 무개념한 저승사자.

애 어쨌어?

네가 안 죽였어?

네가 이사 가라고 알려 줬어?

이사 가라고 알려 주려고 왔는데 알아서 갔네.

이사 간다고 내가 못 찾을 거 같애?

응, 못 찾았잖아. 10년 동안. 내가 봤을 땐 걔가 이사를 안 가도 넌 못 찾겠는데?

그래서 어디로 이사 갔는데? 넌 알지? 어디야?

★

괜찮아. 뭐 어차피 잠만 잤지, 진짜 우리집도 아니었어.

저기요? 없네. 없네.

얘, 너 나 보이잖아.

네 보여요, 다 되게 잘 보여요 우리 얘기 좀 해요.

어디 갔어?

얘, 너 너.. 무서워. 갑자기 왜이래?

저번에 나한테 도깨비 신부라고 그랬잖아요. 왜 그랬어요?

아 그거 그 사투리 쓰는 할매(할머니)한테 들었는데.

이자 내가 보니까네 딱 얼굴 보고 살려준기라, 니그 엄마가 이 인물이 좋았자나, 꼴딱꼴딱 넘어가던 숨이 한꺼번에 확 돌아 오는데, 한 겨울에요 어 벚꽃이 벚꽃이 후르르 떨어지는데 어찌나 신기 하든가.

(사투리: 이제 내가 보니까 딱 얼굴 보고 살려준 거다. 네 엄마가 인물이 좋았잖아. 꼴딱꼴딱 넘어가던 숨이 한꺼번에 확 돌아 오는데, 한 겨울에 벚꽃이 후르르 떨어지는데 어찌나 신기하던지)

도깨비가 저랑 엄마를 살렸다는 거예요?

어 모르긴 몰라도 니하고 느그 엄마는 그날 아마 죽을 운명이었을기다. 조금 이따가 그 저승 사자가 그자리 찾아 왔더라고. 허탕 치고 갔재.

(사투리: 어, 모르긴 몰라도 너하고 너희 엄마는 그날 아마 죽을 운명이었을 거야. 조금 이따가 그 저승사자가 그 자리에 찾아 왔더라고. 허탕 치고 갔지.)

크으, 결국에는 자기 신부를 살린 거네. 로맨틱해

그 아저씨의 말이 다 맞았어요. 저는 애초에 미워할 자격이 없었던 거네요. 도깨비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럼 울(우리) 엄마랑 아홉 살까지 산 기억도 없었을 거고.

화 냈어? 도깨비한테? 심하게?

이제 저 어떡해요?

그냥 이 참에 나 따라 갈래?

무엇을 어떡해, 도깨비한테 시집 가야지

★

저기요, 여기 은탁이라는 알바.. 어우 깜짝이야.

어서 오세요. 편한 데 앉으세요.

아니 나 손님 아니니까 아가씨 말고 사장 나오라 그래. 빨리 급해

말씀하세요 급히. 이 아가씨가 여기 사장이에요.

아 아가씨가 여기 사장이야? 아, 나는 은탁이 걔 이모인데, 이봐 당신 당신 대체 누구 허락 받고 남의 집 귀한 조카를 이런 데서 알바 시키는 거야?

안 귀해 보였어요.

뭐야?

사고무탁이라는 말 알아요? 걔가 그거예요.

뭔 소리야 뭔 탁? 걔 지은탁인데.. 걔가 그거래?

괜찮아요. 나도 몰라서 인터넷 찾아 봤어.

아니 근데 이 여자가 너 자꾸 어디서 반말이야?

그죠? 나도 반 마리(말장난 중. 치킨 반 마리) 시키는 사람 딱 싫어. 닭은 한 마리지.

아니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게..

근데요, 은탁 이모, 그 귀한 조카분 지금 학교에 계실 시간인데 왜 여기 와 이러세요?

아 학교에서는 내가 여러 번 해 봤는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온 거니깐 협조 좀 해요. 아니 얘가 집을 나가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. 야! 애 삐뚤어지면(바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다) 너 책임질 거야? 없는 듯이 있을 테니깐 신경 쓰지 말고.

어 오빠야, 오랜만이네. 내 뭐 그럭저럭 지낸다 여 뭐 아줌마 한 분이 내 곱게 생기가 마음도 고운 줄 아는지 억수로 언짢게 하는 거 빼고는 괘안타,

(사투리: 어, 오빠, 오랜만이네. 나는 뭐 그럭저럭 지내. 여기 뭐 아줌마 한 분이 내가 곱게 생겼다고 마음도 고운 줄 아는지 정말 언짢게 하는 거 빼고는 괜찮아)

저게 씨..

오빠 니 아직 사람 패고 그러나? 여자 패도 죄책감 없고? 남녀 평등? 그래 살면 안 된다. 뭐 지금 온다꼬? 여 주소가..

(사투리: 오빠, 아직도 사람 때리고 그래? 여자 때려도 죄책감 없고? 남녀 평등? 그렇게 살면 안돼. 뭐? 지금 온다고? 여기 주소가..)

간다! 가, 가잖아! 지금 가고 있잖아! 가 갑니데이(사투리: 갑니다) 가잖아 나 지금.

뭔 소리야 너 뭐 하는데? 너 사투리 완전 구려.

알아. 알지만 이거라도 해봤다. 잘 지내지? 끊자.

★

아 진짜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진짜? 하여튼 이 기집애 잡히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.. 어우 뭘 집에까지 와? 내가 지금 전화 할라고 막

이봐, 이봐. 돈 빌린 사람이 돈 빌려 준 사람 보다 속 편하게 산다니까? 내가 뭐 기름이 막 쳐 남아 돌아서 집에까지 왔겠어?

통장만 찾으면 내가 바로 갚는다니까! 이 기집애가 집을 나가가지고 내가 아주 곤란해 지금!

나는 아줌마가 내 전화를 안 받아서 아주 곤란해 지금. 차도 가지고 왔는데 어디 경치 좋은 야산이나 함께 구경 갑시다, 아줌마.

나 나 나 어떻게 되면 당신들 그 돈도 못 받아. 걔 법적 보호자가 바로 나야!

아이고 이 아줌마는 주둥이만 살아 가지고 주둥이만 살아 가지고 그 보험금 소리만 지금 몇 개월째야? 진짜 보험금은 있기는 있어?

있다니까! 걔 엄마가 지 죽을 날 아는 년처럼 태아 보험에다가 지 생명보험까지 8년을 꼬박 부어 놨더라니까, 1억 5천 정도가 나왔어. 근데 이게 통장이 자꾸 없어져, 재발급을 받아도 자꾸 없어지니깐 내가 돌아버리.. 진짜야, 그 기집애 손에 있어 확실해.

걔가 어느 학교 다닌다고 그랬지?

★

야, 나 삼만 원만. 급해. 다음주에 줄게. 답장해라.

TEXT ON THE SCREEN

야 나 삼만원만. 급해. 다음주에 주께. 답장 해라.

학생 어디가?

누구세요?

학생이 집을 나오면 어떡하나? 위험하게.

아니요, 저기 왜 이러세요? 아니 어머 왜 이러세요!

이모 많이 걱정하시잖아, 빨리 타!

★

궁금한 게 있는데, 이 집 20년 렌트면 돈이 만만치 않은데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냐?

상주(chief mourner)가 상여(bier)나 제사(ancestral rites)상 위에 노잣돈(죽은 사람 저승길 편하게 가라고 주는 돈)을 올려줘, 망자가 저승강 건널 때 뱃삯(배 이용요금) 하라고, 무려 그걸 300년 동안 모았어. 그러니 내가 이 집이 포기가 되겠어, 안되겠어?

우와 돈 모은다는 표현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. 난 금도 많고 돈도 많아서.

후추 안 필요해?

너는 어째 배우는 게 없냐?

방금 그거 루이 14세 때 접시다.

포크 내려놔.

네 나이프부터 내려놔.

★

저 정말 몰라요, 저한테 정말 통장 없어요. 이모한테 있어요.

네 이모는 너한테 그러고 너는 네 이모한테 있다고 그러고,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네, 그치?너 확 뒤질라고!

★

뭐야? 제대로 해보자 이거야?

★

우리 성격 급해. 이 차가 어디 도착 하는지 알고 이러는 거야? 여학생이 이렇게 으슥한 곳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TV 통해서 많이 봤을 거 아니야? 통장, 통장 어디에 숨겼어?

저 정말 몰라요. 이모가 진 빚을 왜 저한테 그러세요? 내려 주세요. 안 내려 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.

신고? 신고는 이 년아 내가 하게 생겼다! 야 이 새끼야 너 운전 똑바로 안 해?

형 저기..